

【 국내금융 뉴스 】

FY09 상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 금감원에 따르면 FY09 상반기 보험회사의 모집조직 규모는 생보설계사가 전년말 대비 1.0% 감소한 반면, 손보설계사 수가 2.8% 늘어나면서 전체 전속설계사 수는 FY08보다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수(교차모집 설계사 제외)는 FY08말 22만 4천명에서 FY09 상반기 22만 5천명으로 약 0.4% 확대되었으며, 이 중 생보설계사 수가 14만 1천명(62.7%), 손보설계사 수가 8만 4천명(37.3%)으로 나타남.
 - 한편, FY09 상반기 보험대리점은 FY08말 59,100개에서 1.3% 늘어난 59,900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생보와 손보는 각각 22.9%, 77.1%의 비중을 차지함.

- FY09 상반기 판매채널 효율 지표인 보험계약 유지율과 보험설계사 정착률, 설계사 및 대리점의 생산성 추이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후 실효·해약이 증가함에 따라 FY08 말 대비 하락세를 보임.
 - 보험계약 유지율(13회차)은 그간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로 FY07 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FY09 상반기에는 71.3%로 크게 하락함(FY06 80.9% → FY07 81.6% → FY08 78.2%).
 - 보험설계사 정착률에 있어서는 장기재직 설계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FY07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설계사 유치경쟁 심화, 생보사의 판매실적 악화 등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의 설계사가 대리점으로 이동하면서 FY상반기 설계사 정착률은 36.1%를 기록함(FY06 41.3% → FY07 42.0% → FY08 39.8%).
 - 한편, 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1인(개)당 월평균 모집액은 전년말 대비 각각 3.4%,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감원은 향후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실적, 해약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모집조직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흡쇼핑과 같은 비대면채널의 과장광고 근절 등을 통해 완전판매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힘.

(FY상반기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감독팀, 12/2)